

# 익산시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

### 국비 100억원 등 예산 200억 확보 2016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 보석문화 도시브랜드 구축에 역점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체부 제3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에서 공주·목포·밀양·수원·영등포와 함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 역사·문화도시로 명성을 쌓는다.

시는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6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역사와 현대인의 삶을 연계한 도시 문화를 제시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세계유산도시,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대표되는 '백제'와 일제강점기 철도 중심지인 '근대이리' 등의 역사에 마을과 도시, 사랑을 도시 정체성의 중심으로 활용한다.

시는 도시 단위의 '문화도시 삼삼오오'와 마을 단위 '문화마을29' 등 시민 참여 플랫폼을 강화하고 체계화해 시민주체로 문화가 도시 전체로 확대해 간다.

특히 백제의 공예문화와 1970년대부터 귀금속



시민·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시민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산업도시를 이끈 장인들과 함께 보석공예를 문화와 기술 융합형 미래문화산업으로 혁신해 보석문화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예비사업기간 동안 시민·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시민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워크숍과 공청회, 매월 '다같이'를 통해 시민들과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공유했다.

조성계획의 방향성, 5개년 계획 수립,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 문화도시 시민홍보 등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문화도시를 열망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들께 연말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익산만의 특별한 문화컨텐츠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전북지역 최초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정읍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읍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7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76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총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중환 업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의 후생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국가와 연수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황숙주(왼쪽에서 두번째) 순창군수가 지난 24일 '발효카페&로컬푸드' 공동판매장 개장식 후 관계자들과 매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순창군, 발효카페&로컬푸드 판매장 문열어

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순창읍 작은영화관 일원에 '발효카페&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을 열었다.

발효카페&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은 발효메카를 꿈꾸는 순창군이 출연기관의 연구성과와 지역 농산가공품, 발효커피 등 우수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성했다.

판매장에는 순창군 연구기관인 진흥원과 건강장수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제품을 비롯해 지역의 우수 농가공품, 특산물 등 70여개 제품이 판매된다.

특히 군민들이 야간 및 휴일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무

인판매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출자·출연기관 외에도 순창에 사업자를 냈다면 누구나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농가들의 유통망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발효카페&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순창군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이 우수한 건강기능성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지·간선제 시행

군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비효율적인 운행개선을 위해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시내버스 2개 업체와 '지·간선제 노선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내버스업계는 지선노선 운영권을 군산시에 이양하게 되며, 군산시는 간선노선에 대한 업계의 손실액을 재정지원금 등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간선제는 주요 도로인 간선과 각 마을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버스 노선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시내버스가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면 마을버스(소형승합차)가 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차량 구입과 회차지 조성 등

을 고려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간선제 시행으로 시내버스(간선)의 경우 기존 120대(57개 노선)에서 104대(38개 노선)로 16대(19개 노선)가 줄어들게 되며, 마을버스 30대(23개 노선)가 새롭게 운행하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감축에 따라 18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과 복지노선 손실보상금 증가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간선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대수와 횡수는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백두대간 생태정거장'으로 불리는 남원 운봉의 서어나무숲.

## 남원시 생태녹색관광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비 2억4000여만원 받아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백두대간 생태정거장 서어나무' Eco Station이 최종 선정돼 국비를 포함 2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해 ▲생태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브랜드화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길 안내체계 구축, 산책로 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녹색관광의 주요 사업대상지인 운봉

의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과 삼산마을 소나무 숲,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2022년 3월부터 생태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함께 ▲숲에서 멧돼지기 ▲숲 속 북카페 ▲자연소리 체험 ▲오감견기 ▲숲 속의 향기요법 등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봉 서어나무 숲을 기반으로 남원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생태관광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비대면 진행

고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쌀, 복분자, 고추 재배관련 영상을 제작했으며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학습단체, 품목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해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27일부터 유튜브(높을고창 농업tv)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교육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고창농업인의 저탄소 농업 실천사항,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준수 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